

진귀한 고려 청자 주전자 구경 오세요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18일~9월 16일 '청자 주자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목포대박물관 등서 대여한 20여점 전시

'고려시대에는 어떤 그릇에 술과 차를 담아 마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줄 전시회가 강진에서 열린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흥과 향에 취하다'란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청자 주자(注子) 특별전'을 연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해 매병(梅瓶) 특별전에 이어 주전자로 불리는 주자 중에서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진귀한 형태의 주자들을 모아 특별전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술과 관련된 시가 주자 문체에 뚜렷하게 새겨진 주자도 볼 수 있다.

이 주자에는 '술자리에서는 금으로 만든 병이 든 청자로 만든 병이 든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술이 가득 있으니 술자리가 끝날 줄 모른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주자라고 하는 종류만을 모아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청주박물관·전주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박물관 등에서 대여한 유물 20여 점이 전시된다.
주자는 매병과 함께 주로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충북 단양과 충주,



청자상감시문표형주자

전남 장흥 등 고려시대 토광묘·석곽묘에서 출토된 주자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고려시대 무덤에서는 주자와 잔, 잔 받

침, 향아리 등이 세트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진 청자요지에서 만든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충남 태안 해저 출수 참외모양 주자도 전시된다.
고려시대 주자는 술이나 차를 담아 잔에 따르는 용도로 사용됐다.
전시 주제처럼 주자에 담긴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흥과 향에 취했을 선인의 감흥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보여주는 청자 주자가 대부분 강진군 청자요지에서 생산된 것이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 대표 특산물 표고·무산김·김치 2억원 어치 홍콩 수출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원목 표고버섯과 무산김이 홍콩 수출길에 오르는 등 장흥산 농수산물품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수출 물량은 표고버섯 3t과 무산김 1만3000세트, 김치 6000세트를 비롯한 장흥 특산물로 약 2억원 규모다. 장흥군에 따르면 11일 장흥군을 떠난 수출품은 부산항에서 선적돼 홍콩으로 출발했다. 이번 수출은 올해 초 표고버섯 35t 수출 계약 협의 후 하반기 첫 수출이다.
정남진장흥농협과 장흥군이 손잡고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창출과 내수시장 함께 극복을 위해 협력한 결과다.



강진 애플 수박 인기만점 강진군 도암면 재배농민이 애플수박을 들여보이고 있다. 기존 수박의 5분의 1 크기의 애플수박은 과실 크기가 1.5kg 전후로 한 번에 먹기 좋아 인기가 많다. 강진읍을 중심으로 3곳의 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배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쇄도한다. <강진군 제공>

현대삼호중 세월호 직립 공사 수익금 1억원 기탁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세월호 직립공사 수익금 1억원을 '행복실현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은 이 기탁금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조선업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에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에 따라 기부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월 세월호 직립작업을 한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한 후

인건비 등실경비를 제외한 직립작업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11일 영암군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21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1억원을 전달했으며 오는 18일 목포시에도 1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윤문군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



현대삼호중공업 1억원 전달식. <영암군 제공>
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전남 군의회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장흥군, 의장 위등·부위원장 윤재숙 의원

장흥군의회는 최근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위등(54·재선) 의원을, 부의장에 윤재숙(여·60·초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김재승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유상호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이 선출됐다.
위등 의장은 "대결과 갈등보다는 긍정과 통합을 지향하고, 공정과 공평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



위등 의장 윤재숙 부의장

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강진군, 의장 위성식·부위원장 문춘단 의원

강진군의회는 최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위성식(62·재선) 의원, 부의장에 문춘단(여·56·3선) 의원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배홍준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김명희 의원, 농업경제위원장은 서순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성식 의장은 "군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집행부와는 유기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로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군민의 작은



위성식 의장 문춘단 부의장

목소리도 크게 들어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의장 조정기·부위원장 유나중 의원

영암군의회는 최근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정기(58·재선) 의원을, 부의장에 민주평화당 유나중(62·초선)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박찬중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강찬원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은 노영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정기 의장은 "영암군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



조정기 의장 유나중 부의장

편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봉선 기자 moon@

영암농협 농업인 무료진료·장수사진 촬영

영암농협은 최근 영암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장수사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농촌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장수사진, 안경지원,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복버스 의료진료에 참여한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은 농업인 450명을 대상으로 척추·관절질환 건강상담과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 맞춤형 한방치료를 실시했으며 장수사진을 지원한 KUNST 스튜디오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150명에게 메이크업 및 맞춤복까지 준비해 촬영에 참여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